



Market Index / 4일

코스피지수 ▼	2464.00 -36.10	코스닥지수 ▼	677.15 -13.65	유가(WTI, 달러) ▲	69.94 +1.84	환율(원)	1USD 100¥	살때 1438.23 955.79	팔때 1388.77 922.93	1EUR	살때 1515.58 202.84	팔때 1456.44 184.44
---------	-------------------	---------	------------------	---------------	----------------	-------	--------------	-------------------------	-------------------------	------	-------------------------	-------------------------

제주 주민등록인구 67만명도 '위태위태'

11월 67만632명으로 19개월 연속 하락세 역대 최대였던 2022년 8월 대비 8384명 ↓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순유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 67만명 지키기 도 위태로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4일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11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632명(제주시 48만8613명, 서귀포시 18만2019명)이다. 2023년 5월(67만7057명)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이다. 인구가 68만명에 근접하며 가장 많았던 2022년 8월(67만9016명)에 견줘 8384명 감소하고, 작년 11월(67만5845명) 대비 5213명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67만명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젊은층 중심의 인구 탈출이 올해 들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2397명으로, 전년 동기(2486명) 대비 3.6%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 출생아 수가 지속되던 감소세를 접고 0.7% 증가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9월까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3662명)가 더 많아 자연감소한 인구도 1264명에 달했다. 이런 추

세라면 연말까지 자연감소 인구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23년(1455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 인구 순유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9월까지 순유출 인구는 3012명으로, 작년 동기(1088명)의 3배에 육박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순유출(1687명)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작년 14년 만의 인구 순유출에 이어 2년 연속 순유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작년 제주 출생아 남녀 기대수명 차 8.0년

남자 79.7년·여자 87.7년 전국 평균 5.9년보다 높아

제주지역 출생아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가 8.0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3.5년으로 전년 대비 0.8년 늘어났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통계표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녀 격차는 5.9년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4년)보다 2.2년, 여

자는 OECD 평균(83.6년)보다 2.8년 길었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각각 스위스(82.3년), 일본(87.1년)이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국보다 0.2년 길었다. 남자는 79.7년으로 전국보다 낮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87.7년으로 전국에서 서울(88.0년)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내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8.0년으로 전국(5.9년)보다 높아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특히 도내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2020년(7.5년)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여자의 기대수명은 2020년과 같았지만 남자의 기대수명은 0.6년 감소하면서다. 문미숙기자



게임 충격에 증시 '달색' 게임령 발동 여파로 코스피가 36.10p(1.44%) 내린 2,464.00에 장을 종료한 4일 오후 서울 한나은행 본점 달링룸에서 달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중국 MZ 공략 친화 콘텐츠 개발해야”

제주연구원, 관광목적지 제주 인식 위한 전략 제시

제주에 무궁무진한 인바운드 시장이 되는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서를 발간하고 중국 MZ세대에게 제주를 '한 번은 꼭 와야 하는, 다시 찾아도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인식시키기 위해 ▷MZ 친화적 콘텐츠 개발 ▷환대하는 수용태세 강

화 ▷MZ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핵심으로 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4일 연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중 중국인은 57.6%를 차지해 여전히 제주 인바운드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89%가 MZ세대로 전략적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중국 MZ관광객은 자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행정보를 얻

는 비중이 비MZ에 비해 월등히 높고, 친구나 연인과의 여행동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여행패턴 역시 완전자유여행이 94.5%일 정도로 개별여행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보여줬다. 다만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세대인 만큼 1인당 지출비용은 132만9481원으로 비MZ 190만2639원에 견줘 낮았다. 이들은 기본 경비인 항공료를 최대한 줄이고 쇼핑도 면세점보다는 길거리나 일반매장, 편의점 등에서의 로컬쇼핑 빈도 비중을 높였다. 총지출 경비는 낮지만 골목경제에는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들 MZ세대는 제주 전역을 개별여행으로 즐기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동부해안과 서부해안 중심의 관광을 선호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MZ친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컬관광을 선호하는 여행트렌드를 고려해 전통시장, 백년가게, 맛집 등 지역의 숨은 관광 콘텐츠를 담은 '제주다운 100선'을 발간해 제주관광을 스토리텔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환대하는 수용태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MZ세대 30%가량이 버스를 이용함에 따라 버스정류장 및 버스 내 안내방송에 대한 중국어 서비스 제공·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국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사오홍슈, 도우인, 틱톡 등 동영상 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제주의 축제, 맛집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도내 업계와 중국 OTA 연결을 위한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MZ 관광객의 도내 여행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규기기자 haru@ihalla.com

한라봉·천혜향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

2024년산 만감류 품질검사 출하 전 12월 한 달간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2월 한 달간 '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해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만감류를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품질 검사는 신청 과원에 방문해 샘플 수확 후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검사 결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질 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해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31~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5. 전선희기자

제주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298농가 2억3300만원 지원

제주시는 2024년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을 마치고 이달 중에 298농가(249ha)에 2억3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인증 기관의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제주시는 지난 3~4월 신청한 319농가 275ha 중에서 부적합 사항을 제외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5ha로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이다. 유기 지속 직불금은 무기한 지급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정소식

이중섭 아카이브 전시 1부 개최
○ 전시명: 이중섭 아카이브 전시 1부: 1916~1943년
○ 전시기간: 2024. 11. 19(화) ~ 2025. 4. 27(일)
○ 전시장소: 이중섭 전시 공간(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 전시내용: 이중섭 관련 서적 및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
○ 전시문의: 이중섭전시공간 ☎ 064-760-3576, 3561)

서귀포시민을 위한 2024 ADIEU 송년음악회 개최
○ 공연일시: 2024. 12. 19(목) 19:30
○ 공연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출연: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소프라노 강정아, 메조소프라노 안젤라 김민지, 테너 강동명, 바리톤 김지우,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 관람료: 1층 10,000원 / 2층 5,000원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관람권 예매: 서귀포시티켓 - 2024. 12. 3(화) 10:00~
○ 관람문의: 서귀포예술의전당 ☎ 064-760-3368)

2025년 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관 신청 알림
○ 접수기간: 2024. 11. 27(수) ~ 12. 11(수)
○ 대관기간: 2025. 3. 4. ~ 11. 9
○ 대관시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
○ 시설이용요금: 1일 5만원
○ 이용가능시설장비: 전시실, 레일, 조명, 프로젝터, 냉난방기, 모니터
○ 접수방법: 유선문의(가능일정확함) 후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시설사용허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전시계획개요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 064-760-640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